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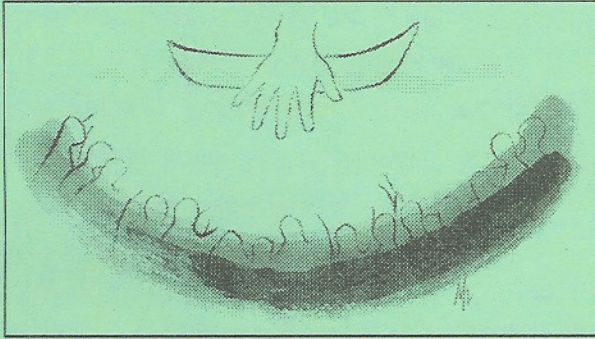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29권 34호(나해) 2009 · 7 · 19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려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마르 6,34)

사도들을 파견하시던 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아가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여 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라.
그러나 떠날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
빵도 돈도 여행 보파리도 안 된다.”
처음에는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해 보니 스승님의 말씀이 맞았다.
복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니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다.
듣고 받은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병들고 허약한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물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참으로 기뻐고,
스승님은 대견해 하시며 좀 쉬라고 하셨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갈증과 허기짐으로 찾아온 군중,
그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을 반납하신다.
그들은 마치 목자도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선을 피하면 악이 성립되고
생명을 거부하면 죽음을 선택한 것이 된다.
그 사이 어느 중간 것은 없다.
생명과 선(善) 가운데 참된 휴식과 평온함이 있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김철웅 베드로, 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생)김태오 아오스딩과 양자 카타리나, 신우용 안토니오, 신현군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장현숙 발바라,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현호 요한, 김금련 야가다, 이금순 마리아, 박석규 베르나르도, 고준희 제임스, 변제연 대건 안드레아, 주광자 안나, 오상훈 요한, 이복순 마리아, 유춘자 미카엘라, 이영자 마리아, 윤기출 마리아, 이홍임 안나, 이상현 베드로, 송옥순, 엄은섭 도로테오, 이성엽 마리아, 김종환 야고보 (생)오테환 파오로와 윤희 글로리아 가정, 안마르코, 안에스터, 엄효수 크리스, 안제만 다니엘과 헤란 데레사, 송기분 수산나, 정열모 미카엘 가정, 정진확 알버트, 백지자 세레나, 홍석인 체칠리아, 최영신 프란치스코 부제,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23,1-6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몸 눕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를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주께서 당신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살으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13-1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마르코(Mark)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억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51	230
봉헌	409	225,269
성체	주품에	303,299
파견	야곱의 축복	241

19) 출산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적 개입은 가능하나 혼인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의학은 반드시 성이 갖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는 모든 인간과 그 인간 출산에 봉사해야 한다. 그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그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하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의료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생명의 선물 제2부 7항>

오늘날 의료적 기술이 인간 출산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할 때 자연적 부부행위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는 항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이 출산만을 위한 목적으로 부부행위를 대체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과 선물로 새 생명을 전달하려는 창조주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 생명이 전수된다면 새 생명은 마치 실험실의 산물이나 소유 가능한 물건처럼 취급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품위와 권리가 훼손되고, 아이에게도 “부모의 특별한 부부 사랑 행위의 결과로 인한 열매가 되는 권리와, 또한 수태 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선 가톨릭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인간 생명 전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20)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아이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혼인 그 자체가 부부로 하여금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직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런 부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을 줄 뿐이다. 아이란 어느 누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부부가 가장 감사해야 할 혼인의 선물, 즉 하느님이 주신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 증여행위의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다.”<생명의 선물 제2부 8항>

통계에 의하면 부부 7쌍 중 한 쌍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아기를 낳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교회는 이를 반대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인간의 품위를 훼손될 뿐 아니라 많은 배아가 파괴되거나 냉동되는 등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존엄성을 지닌 인격주체이기에 부모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불임부부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입양 등 생명을 위한 다른 봉사의 기회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며, 과학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 연구를 계속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정 그들에게서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겨져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서도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며 동시에 군중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정녕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도움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또 굳이 도움을 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살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 나 하나 잘살면 그만이지.’

주변에서 가끔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이기적인 사고에 폭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은연 중 그런 식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그러니 자네 걱정이나 하며 살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 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혼자 발버둥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지구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될 일이 뭐 있을까? 그럴 바에야 나만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오래 전 부터 이미 길들여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는 그런 식의 알팍한 논리아말로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눈길을 떼지 않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믿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해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채승희 에스터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고 이병호 토마스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병호 토마스(토런스 서4반) 님께서 7월16일 오후 5시 20분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93세. 전 상공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연도 & 부잉 : 7월21일(화) 오후 7시30분
- 장례미사 : 7월22일(수) 오전 9시
- 장지 : 로즈힐 묘지(위티어)

◆ 고 김종환 야고보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당 요셉회 회장을 지난 6월말까지 지내셨고, 글로리아 성가대 김옥찬 수산나 자매의 부군이신 김종환 야고보 형제님(토런스 동 1반)께서 7월14일 밤 11시경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77세.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연도 & 부잉 : 7월22일(수) 오후 8시
- 장례미사 : 7월23일(목) 오전 10시
- 장지 : 홀리 크로스 묘지

◆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천상의 어머니' 창단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중에
- 회합 : 매달 둘째주일 오후 2시30분
- 단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꾸리아(Curia)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레지오 마리아의 기본 조직인 프레시디움(Presidium)의 상급조직을 일컫습니다.

◆ 윤재홍 박사의 '기(氣)치료' 특별 건강강좌

- 일시 : 오늘 주일(19일) 오후 1시~2시30분, 강의와 상담
- 장소 : 강당
- 제목 : 기(氣)와 건강
- 문의 : 요셉회 총무 권진열 피데스 ☎(310)800-3592
- * 강의 직후 난치병 위주로 예약순서대로 개별상담 있음.

◆ 대학부 파첸(PACEM) 공부방 개설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이 '공부방'을 개설합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신청해주십시오.

◆ 혼인공시 / 축하합니다. ◆

◆ 혼배성사 : 2009년 8월1일(토) 오후 1시

♡ 이상용 패트릭 & 송주영 크리스티아 ♡

- 주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부모님 성함 : 이철호 & 유혜은
송재훈 필립보 & 이영희 올리아나
- 일시 : 8월1일(토) 오후 1시
- 장소 : St. John Fisher(5488 Crest Rd. R.P.V. 90275)
- 리셉션 : 혼배미사 끝난 후 백삼위 한인성당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알려주십시오.

- 문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백삼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봉헌식 및 임명장 수여

- 일시 : 7월26일(주일) 11시 미사 중에
- 평신도 협의회 모든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토너먼트

- 일시 : 8월8일(토) 티오프 : 낮 12시
- 장소 : 엘도라도파크 골프코스
- 문의 : 신임회장 정충로 안토니오 ☎(310)991-6966
부회장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신청 마감이 가깝습니다.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9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7월26일(주일) : P.V. 1반(콩나물비빔밥+오이냉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양금	김원호
	김진숙	김충섭	나경흠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민찬기	박광자	박상진	배태임	신중철	신현화
	안태갑	엄정자	오세원	오태환	이강우	이경용
	이민상	이상석	이용식	이인두	이일길	이재용
	이효세	정병훈	정열모	정훈모	조윤영	차병용
	최경숙	최길주	한금순	황인중		
	송마이클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5,240		
	미사헌금 : \$2,702					

성전헌금	구자운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양금	김원호
	김충섭	나경흠	문충한	민봉식	민소예	민찬기
	박광자	박상진	신중철	안태갑	엄정자	오세원
	오태환	이경용	이민상	이상석	이용식	이재용
	이효세	정열모	정훈모	조윤영	차병용	최경숙
	최길주	한금순	황인중	한길선례		
	합계 : \$3,055					
	감사헌금 : 최현찬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찬미의 밤(Praise Night 2009)**
 - 일시 : 7월23일(목) 오후 8시~10시, 강당
 - 대상 : 8학년~12학년(Steubenville 참가자들)
 - 문의 : 나윤아 안젤라 ☎(310)991-9920
-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성당에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성당 도착
 - 장소 : 샌디에이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 대상 : 8학년~12학년
 - 연락 : 강혜원 교장 ☎(310)780-0369
-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학생미사 : 매 주일 오전 9시30분. 여름방학 중에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 9월13일(주일)

남가주 소식

- ◆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의한 8박9일 침묵 피정**
 - 일시 : 8월12일(수)~8월20일(목)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집
 - 주제 : 예수님과 함께 갈망하는 삶을 향해
 - 지도 : 윤성희 이나시오 신부(예수회)
 - 주관 :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신청 : 정도로테아 ☎(818)321-9505
- ◆ **2009년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정 : 8월22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8월23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16007 Crenshaw Bl. Torrance)
 - 강사 : 오스카 솔리스(LA대교구 보좌주교),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현요안 요한 신부(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 전홍식 요아킴 신부(베이커스필드 성당 주임), 반병역 라파엘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참가비 : \$25(예약시 \$20)
 - 연락처 : 각본당 성령기도회 및 봉사회 ☎(213)435-7570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09~10 첫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7/10(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	신덕레 데레사 634-6169	신덕레 데레사 634-6169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11(토), 할리웃볼, 5:30 월슨팍 집합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엄영숙 마리아 995-5662 7/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임한나 325-6982 7/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히코리팍 야유회 793-7733 7/11(토) 오전 11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7/19(일) 오전 10시 델손팍 야유회
	3	대전회 :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7/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3	박은혜 클라우디아 265-0856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백삼위의 그리운 형제자매님들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가꾸며 살다가 뜻밖의 변고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 그렇게도 그리던 하느님의 품에 안긴 저의 사랑하는 아내 스킨라스티카를 위한 눈물과 기도, 그리고 살아남은 저와 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염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드릴만큼 마음이 정리가 되지 못하여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희 둘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기까지의 일들을 시(詩)로 적어 놓았던 것을 화보로 정리하여 그 사람의 영전에 못 다 채운 결혼 35주년 선물로 바침으로써 애절한 마음을 쓰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눌 수는 없기에 그 첫 장과 마지막 장만을 보내드려 긴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7월 윤 베네딕토 올림.

나의 거들 짝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거들 짝으로서 나무랄 곳이 없었던 그대가 내 곁을 떠난 이후에 새삼 다가오는 또 하나의 상실감은 바로 나의 그 어설픈 글들을 마음으로 읽고 눈물로 감상해 줄 유일한 독자이자 열렬한 팬이었던 문우(文友)를 잃었다는 것이요.

언젠가는 그대의 내면을 나에게 활짝 열어 아름다운 글로 정리하겠다는 더니 보석보다도 더 귀할 글 재료로 고스란히 안은 채 그리도 속절없이 떠났으니 꿈에서라도 전해주거나, 아니면 나의 의식과 영혼을 첨예하게 베풀어 시공을 초월하여 그대의 내면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승화시켜 주는 것이 유일한 독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소?

보잘 것 없는 글들이나마 그대에게만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조각들을 며칠 밤을 새워 다시 단장하고 묶어서 그대에게 전하니 못 채운 결혼 35주년 선물로 받아주소. 그리고 천상의 영복에는 눈물도 없겠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읽다가 더러는 울고 더러는 격려도 전해 주구려.

그대는 잘 몰랐겠지만, 그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다가 아름답게 떠났다는 것이, 그대 삶과 죽음의 독자이자 열렬한 팬이었던 한 영혼의 엄숙한 고백이요. 그리고 그대도 내가 그리우면 그대를 돌아보던 젊은 날의 내 추상을 보시구려.

아무런 조건도 셈도 없이 청순한 소년소녀의 첫눈에 서로 들어 와 어느새 자라버린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만남에도, 이제 돌이켜 보면 에피소드와 같은 것이지만 안타까움은 왜 그리 많았던가?

당신의 24돌 생일에 우리는 아마도 어느 다방의 한 구석에서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었겠지. 그때 우리는 나란히 앉았던가, 마주보고 있었었던가? 아마도 마주보고 있다가 당신이 내 곁으로 건너왔겠지. 그대를 향한 마음을 묘사한 글들을 따로 모아 보았네.

24돌 생일에

큰 초 두 개에

작은 초 네 개를 더하여

맞잡은 손으로 불을 밝히니

혼 세상은 곧 빛이로다.

스물 네 해 전 이들을 간격 하여

한 아기의 생명성(生命聲)이

또 한 아기의 고고성(呱呱聲)과

합창으로 어우러지다.

지나온 길은 모른 채 들어있어도

이제 함께 갈 길은 하나

마주보고 가야 할 한 길

너와 나로 태어났지만

갈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춤추어 나아갈 한 길

신령한 기도로 작별은 나누었지만 정작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네.

천상에서 보내줄 기도 말고는 '잘 있어라'는

당신의 인사도 받을 길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회상을 통하여

당신에게 이별가를 하늘로 띄우고 싶어.

이별가를 써놓고도 당신을 보낼 수 없어

매번 마지막이라 다짐하면서도 읽고 또 읽어보고 ...

◆윤종필 베네딕토